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orea Communications Agency

방송·통신·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
2021년 10월 18일(월)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인본부 사업팀 팀장 김종오 (032) 435-8712
경인본부 사업팀 과장 안기훈 (032) 435-8717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
접경지역 유관기관 합동 해상안전서비스 실시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이하 KCA) 경인본부, 서울전파관리소, 수협인천어선안전조업국, 인천해양경찰서, 인천중부소방서 등 해상통신업무 유관기관은 지난 13일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백령도에서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**합동 해상안전서비스**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서비스에서는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 및 소형보트 등을 대상으로 **해상무선설비(VHF-DSC, LTE-M 등)의 GPS 연동 점검, 서해북방한계선 월북 예방요령 교육, 선박안전 사고사례 소개 및 비상 시 대응 매뉴얼 제작·배부** 등의 활동이 펼쳐졌다.

o 또한, 해상의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는 통신설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목적 방청윤활제를 제공하였으며, 조난신호 발사 테스트를 통해 해상통신설비에 대한 최적의 동작 상태를 유지시켜 해상안전 예방에 기여하였다.

□ KCA 경인본부는 ‘해상안전은 통신장비 점검에서 시작된다’를 슬로건으로, “해상에서 긴급 소통수단으로 통신장비의 중요성”을 재차 강조하며, “통신장비 관리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

[사진설명]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, 수협인천어선안전조업국, 백령면 파출소, 및 진촌어촌계 어민들과 해상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.